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12년도 제20차 회의

1. 일 시 2012년 10월 25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김 중 수 의 장 (총재)
임 승 태 위 원
박 원 식 위 원 (부총재)
하 성 근 위 원
정 해 방 위 원
정 순 원 위 원
문 우 식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송 재 정 감 사 장 세 근 부총재보
김 준 일 부총재보 강 준 오 부총재보
강 태 수 부총재보 김 종 화 부총재보
추 흥 식 외자운용원장 최 운 규 경제연구원장
신 윤 조사국장 성 병 희 거시건전성분석국장
김 민 호 통화정책국장 김 윤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이 명 종 공보실장 서 영 경 금융시장부장
성 상 경 의사관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44호 — 금융안정보고서(2012년 10월)(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금융안정보고서(2012년 10월)(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과 함께 금융안정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본 안건 발의 이후 발표된 통계 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이번 금융안정보고서의 작성과 보완 등이 주관위원의 지도하에 이루어졌으며,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과 위원협의회 등에서 논의된 주요 논의 내용 및 보완·수정 사항이 다음과 같다고 보고하였음.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고서의 책임성과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였는바,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협의회가 원고작성 전반을 조율한 가운데 유관부서가 집필에 참여함으로써 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또한, 금융안정 관련 현안을 심층 분석한 참고자료를 대폭 늘렸음.

보고서 작성시 중점을 둔 사항은 다음과 같음.

거시건전성 여건 변화와 잠재 위험요인에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가계부채의 누증, 한계기업의 채무불이행 위험 증대 등의 위험요인을 심층 분석하였음. 다음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은행부문에서는 차주의 신용위험이 상승하고 있는 점과 중소기업에 대한 경기순응적 대출행태가 강화되고 있는 문제를, 비은행부문은 상호금융조합 보험회사 신용카드사의 경영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음. 마지막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더욱 공고히 유지하기 위한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그동안 위원협의회 등에서 위원들이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제2장 거시건전성 여건 변화와 잠재 위험요인의 목차를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변화된 국내외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현재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미국의 제2차 양적완화 때에 비해 높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번 제3차 양적완화 조치가 주요국간 경쟁적인 통화가치 평가절하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 상향조정 등으로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이 대규모로 유입될 수 있고, 대내외 충격 발생시 동 자금이 일시에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외환건전성 부문에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그밖에, 다른 일부 위원은 공동검사 등을 통하여 금융시스템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당행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개발 노력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정책과제에 추가로 기술하고, 금융안정보고서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관련 부서는 이와 같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각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3) 심의결과

수정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거시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일부 수정하여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금융안정보고서(2012년 10월)(생략)